

중국 수입관세 인하로 수출길 ‘활짝’



* 2018 Sial China, 상하이국제식품박람회

중국, 7월 1일부터 일용소비품 수입관세 인하

- 중국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에서 국민의 생활수요의 만족을 위하여, 지난 5월 31일 1,449개 수입 일용소비품의 최혜국 관세율 인하를 발표했다. 변경된 관세율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평균 수입관세가 15.7%에서 6.9%까지 인하되었다.
- 이번 수입관세율 조정품목은 주로 식품, 화장품, 의류, 약품 등의 일용소비품으로, 그 중 식품은 388개이다. 유자차, 인스턴트국수(라면), 간장, 과즙음료, 커피류, 생수 등 한국의 대중수출품목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한-중 FTA 세율을 적용받고 있었으나 이번 최혜국 관세율 조정을 통해 더욱 낮은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대중수출 확대의 호재가 전망된다

주요 품목 관세율 인하

품목	HS CODE	최혜국 관세율		한중FTA 관세	비고 (한중FTA 관세 대비)
		기존	변경		
유자차	21069090	18.4%	12%	18.72%	6.72% ↓
간장	21031000	28%	12%	22.4%	10.4% ↓
인스턴트국수	19023030	15%	10%	12%	2% ↓
김치	20059999	25%	5%	20%	15% ↓
과즙음료(쥬스)	20096100 ~20099090	20%	5%	18.72%	13.72% ↓
육류가공품	(삼계탕포함)	15%	5%	12%	7% ↓
커피류	21011200	30%	12%	24	12% ↓

* 기타 관세율 인하품목은 KATI(www.kati.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및 전망



유자차

최혜국관세율
18.4% → 12%
수출액
(¹⁶) 21,368 → (¹⁷) 15,336

유자차는 현지 인기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유자차 생산 증가 및 점유율 확대에 의해 2017년 수출액이 28% 감소했다. 중국업체의 한국 OEM 제품과 한국 유자청(유자절임)을 수입하여 현지에서 제조한 제품은 한국산 유자차에 비해 가격이 낮을뿐더러, 소비자에게 한국제품으로 혼동되어 한국산 제품의 판매 부진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한국 유자차 업계는 대형유통매장 위주에서 벗어나 음료·외식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 새로운 유통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5월말 누계 수출액이 7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유통환경 변화와 더불어 관세인하조치라는 이중의 호재를 만난 만큼, 이를 적절히 활용해 수출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김치

최혜국관세율
25% → 5%
수출액
(¹⁶) 441 → (¹⁷) 298

2015년 말 중국정부의 김치수입위생기준 개정으로 김치 수출길이 다시 열림에 따라 전년대비 4배 이상의 수출액 증가를 보였으나, 중국의 한국식 김치 생산량 증가와 함께 2017년 수출액이 32% 감소했다. 산동성, 랴오닝성, 지린성을 중심으로 공장형 한국식 김치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제품에 비해 한국산 김치는 2~3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관세율 인하로 인해 김치 수출을 위해 극복해야 할 가격장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면

최혜국관세율
15% → 10%
수출액
(¹⁶) 75,328 → (¹⁷) 103,184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라면시장을 지님과 동시에 한국라면의 최대 수출국이다. 중국 소비자의 온라인 거래 확대에 직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 2017년 전년대비 37% 라면수출액이 상승하였다.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아 가격이 인하된 효과가 소비자의 구매로 이어진 것이다. 이를 볼 때 수입관세 인하 역시 라면 수출에 호재로 작용될 것이 기대되어, 수출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국내 수출업체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액 단위 : 천불

